

2018년 신흥국 경제 전망

I. 아시아	4
II. 중남미	10
III. 중동·아프리카	15
IV. 동유럽·CIS	21

작 성

선임조사역 오경일 (6255-6664)
oki1122@koreaexim.go.kr

선임조사역 김찬수 (6255-5704)
avik@koreaexim.go.kr

선임연구원 조영관 (6255-5759)
ykj@koreaexim.go.kr

책임조사역 김희원 (6255-5720)
hwkim@koreaexim.go.kr

조 사 역 이정애 (6255-5712)
aeleej@koreaexim.go.kr

조 사 역 김은경 (6255-5725)
lenakim@koreaexim.go.kr

세부 목차

I. 아시아	4
1. 지역 경제전망	4
2. 국가별 경제전망	6
가. 중국	6
나. 인도	7
다. 베트남	8
라. 인도네시아	9
II. 중남미	10
1. 지역 경제전망	10
2. 국가별 경제전망	12
가. 브라질	12
나. 멕시코	13
다. 아르헨티나	14
III. 중동·아프리카	15
1. 지역 경제전망	15
2. 국가별 경제전망	17
가. 사우디	17
나. 이란	18
다. 아랍에미리트(UAE).....	19
라. 이집트	20
IV. 동유럽·CIS	21
1. 지역 경제전망	21
2. 국가별 경제전망	23
가. 터키	23
나. 러시아	24
다. 우즈베키스탄.....	25

I. 아시아

1. 지역 경제전망

<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

단위: %

지역	구분	2015	2016	2017 ^e	2018 ^f
동북 아시아 ¹⁾	경제성장률	5.3	5.2	5.4	5.1
	소비자물가상승률	1.2	1.5	1.5	2.0
	경상수지/GDP	3.5	3.1	2.7	2.5
	재정수지/GDP	-2.6	-3.2	-3.3	-3.1
동남 아시아 ²⁾	경제성장률	4.8	4.8	5.1	5.1
	소비자물가상승률	3.2	2.4	3.2	3.1
	경상수지/GDP	3.3	3.7	3.3	2.7
	재정수지/GDP	-1.4	-1.6	-2.2	-2.2
남아시아 ³⁾	경제성장률	7.4	6.8	6.6	7.1
	소비자물가상승률	4.9	4.4	4.0	4.9
	경상수지/GDP	-0.9	-0.7	-1.6	-1.9
	재정수지/GDP	-6.6	-6.0	-6.1	-6.0

자료: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2017.10

□ [경제성장] 인도,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이 경제성장 주도 전망

- 아시아 신흥국 경제는 인도,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의 성장세에 힘입어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6.5%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성장률 둔화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경제성장률은 5.1% 수준으로 전년 대비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2018년에 투자성장세는 다소 둔화되나 민간소비와 정부지출의 성장세에 힘입어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6% 중반의 성장률을 달성할 전망이다.
- 동남아시아는 소비 증가 및 투자활성화 등 내수활성화와 함께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 이후 성장동력 확보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5.1%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등은 6%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며 동남아시아 경제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됨. 인도네시아도 내수 확대 등에 힘입어 5%대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남아시아는 인프라 사업 추진, 내수 활성화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7.1%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인도는 민간소비 증가와 함께 공공 인프라 사업 추진 등 내수 활성화로 경제성장률이 7.4%로 확대되면서 남아시아 경제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됨.

1) 중국, 홍콩, 일본, 한국, 마카오, 몽골, 대만 등 7개국

2)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동티모르 등 11개국

3)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네팔, 부탄, 몰디브 등 7개국

□ [물가] 물가상승률은 3%대 초반으로 상승하나 대체로 안정세 지속 전망

- 아시아 지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상승 등 국제 원자재가격 회복 등으로 3.2% 수준으로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체로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동북아시아와 남아시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각각 2.0%와 4.9%로 전년 대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한편, 동남아시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과 비슷한 3.1%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금융긴축기조 지속과 경제성장세 둔화로 물가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전망으로 2018년에 전년과 유사한 2%대의 물가상승률이 예상됨. 인도의 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확대된 4.9% 수준으로 전망됨.
 -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4% 내외를 기록할 전망이나, 태국은 1.0%로 낮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는 3% 내외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됨.

□ [경상수지] 동북아와 동남아는 경상수지 흑자, 남아시아는 적자 지속 전망

- 동북아와 동남아 지역은 대체로 경상수지 흑자 유지 전망이나 유가 회복에 따른 에너지 수입액 확대, 내수활성화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로 인해 경상수지 흑자 비중이 각각 2.5%와 2.7%로 전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한편, 남아시아 지역은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2018년 국제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은 -1.9%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상품수지 흑자 증가세 둔화와 서비스수지 적자폭 확대 등으로 2018년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은 1%대 초반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2018년 태국·말레이시아·베트남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도네시아·필리핀은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인도의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은 국제유가의 상승에 따른 원유 수입 증가 등으로 -1.5% 수준으로 소폭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 대부분의 국가들이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 지속 전망

-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중은 2018년 -3.9%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됨.
 - 베트남은 -6%에 육박하는 높은 수준으로 전망되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2%대, 필리핀과 태국은 -1%대로 상대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됨.
 - 인도의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인프라 사업 추진, 취약한 농촌지역 지원 등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여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6.2% 수준으로 전망됨.

2. 국가별 경제전망

가. 중국

<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

단위: %

	2015	2016	2017 ^e	2018 ^f
경제성장률	6.9	6.7	6.9	6.5
소비자물가상승률	1.4	2.0	1.6	2.4
경상수지/GDP	2.7	1.7	1.4	1.2
재정수지/GDP	-2.8	-3.7	-3.7	-3.7

자료: IMF, 중국국가통계국

□ [경제성장] 내수주도 성장 모델로의 전환과 질적 성장에 주력

- 기업부채증가에 따른 중국 정부의 디레버리징 강화에도 대내외 수요회복과 정부지출 확대로 2017년 경제성장률은 목표치를 상회한 6.9%를 시현하였고, 2018년에는 투자성장세는 다소 둔화되나 민간소비와 정부지출의 성장세에 힘입어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6%대 중반의 성장률을 달성할 전망이다.
- 시진핑 집권 2기를 맞아 공급측 구조개혁과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농촌간 소득격차 완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산업 발전, 대외개방 가속화, 환경오염 해결 등을 통해 질적 성장에 주력할 계획임.

□ [물가] 긴축정책과 성장세 둔화로 물가 상승폭은 제한적

- 경제성장세 둔화와 국제 원자재 및 식료품 가격 하락으로 2017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를 시현함. 2018년은 소폭 상승한 2%대의 물가상승률이 예상되며 정부의 금융긴축기조 지속과 경제성장세 둔화로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반등, 식료품 가격 회복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 [경상수지]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소폭 감소하고 외환보유액은 안정적 수준 유지

-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015년 이후 점진적으로 축소되어 2018년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1%대에 머무를 전망으로 이는 민간소비성장으로 수입 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여 상품수지 흑자 성장세는 둔화되나 중국인의 해외여행 급증에 따른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는 것에 기인함.
- 외환보유액은 2014년 이후 감소세를 시현 중이나 2017년 말 기준 3조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의 자본유출 통제와 외환유입 조치로 2018년에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재정수지] 성장률 둔화 방어에 따른 지출 확대로 재정수지 적자 지속

- 정부지출 확대로 2017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3.7%를 기록함. 2018년에도 전년에 이어 구조개혁에 따른 성장률 둔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적자 비중은 전년과 동일한 -3.7%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나. 인도

<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

단위: %

	2015	2016	2017 ^e	2018 ^f
경제성장률	8.0	7.1	6.7	7.4
소비자물가상승률	4.9	4.5	3.8	4.9
경상수지/GDP	-1.1	-0.7	-1.4	-1.5
재정수지/GDP	-7.1	-6.6	-6.4	-6.2

자료: IMF

□ [경제성장] 소비 증가 등 내수활성화로 경제성장률 7.4%로 확대 전망

- 2016 회계연도에는 화폐개혁에 따른 투자 위축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7.1%로 둔화됨. 2017 회계연도에도 화폐개혁의 영향과 상품서비스세(GST) 법안 시행에 따른 혼란으로 소비증가세 둔화되며 경제성장률이 6.7% 수준으로 둔화된 것으로 추정됨.
- 2018 회계연도에는 민간소비 증가와 함께 지하경제 축소, 공공 인프라 사업 추진 등 내수 활성화로 경제성장률이 7.4%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물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 증가로 물가상승률 4.9%로 상승 전망

- 2016년에는 화폐개혁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식료품가격 하락 등으로 물가 안정목표(2.0%~6.0%) 범위 내인 4.5%의 물가 안정세가 유지됨. 2017년에도 경제성장률 둔화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8%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나, 2018년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 증가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9%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경상수지] 유가 상승에 따른 원유수입 증가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 확대 전망

-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2012년 -4.8%로 확대된 이후 저유가에 따른 원유 등 수입감소와 경제성장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6년에는 -0.7% 수준으로 개선됨. 2017년에는 국제유가의 부분적 회복에 따른 원유 등 수입증가로 -1.4%로 악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2018년에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유 수입 확대 등으로 -1.5% 수준으로 소폭 악화될 전망이다.

□ [재정수지]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개선세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

-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화폐개혁 실시를 통한 세원 확대, 2017년 7월 GST 시행 등으로 2017년 -6.4%로 축소되는 등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 2018년에는 GST 시행으로 정부의 세수가 확대될 전망이나 인프라 사업 추진, 취약한 농촌지역 지원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6.2%로 전망됨.

다. 베트남

<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

단위: %

	2015	2016	2017 ^e	2018 ^f
경제성장률	6.7	6.2	6.3	6.3
소비자물가상승률	0.6	2.7	4.4	4.0
경상수지/GDP	-0.1	4.1	1.3	1.4
재정수지/GDP	-6.2	-6.6	-5.8	-5.8

자료: IMF

□ [경제성장] 민간소비 성장과 외국인 투자 확대로 6%대의 경제성장세 지속

-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민간소비 진작,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로 2016년 경제성장률이 6.2%를 기록하였으며, 2017년에도 견조한 국내소비, 농업생산 회복,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와 제조업 성장으로 6.3%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8년에도 임금인상에 따른 소비 진작, 정부지출 증가, 민간투자 활성화로 6.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물가] 통화약세 지속, 국제유가 상승으로 소비자물가는 4%대로 상승

- 베트남 동화 약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2017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4%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8년에는 통화약세가 지속되고 2017년 말에 시행된 전기요금 상승(6.1%)과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계속되어 4.0%의 물가상승률이 예상됨.

□ [경상수지] 상품수지 흑자세 둔화로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1% 중반대로 하락

- 제조업 부문의 수출 및 외국인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간재·자본재 수입 증가 등으로 상품수지 흑자폭은 감소하고 서비스수지 적자는 증가하여 2017년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2016년 4.1% 대비 감소한 1.3%를 기록할 것임.
- 2018년에도 외국인투자 활성화에 따른 중간재 수입 증가와 수입소비재에 대한 수요 강세로 상품수지 흑자세가 주춤하여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전년과 유사한 1.4%가 예상됨.
 - 다만 2015년에 체결된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이 예정대로 2018년에 발효될 경우 EU 앞 섬유·의류·신발과 석유 수출이 대폭 늘어나 향후 상품수지 흑자 확대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음.

□ [재정수지] 재정수지 적자비중은 소폭 감소

- 정부의 인프라 투자 지출 및 사회복지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2017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5.8%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2018년에는 국영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정부지출 축소, 간접세 징수 확대에 따른 정부세입 증가 등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동 비중은 -5.8%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라. 인도네시아

<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

단위: %

	2015	2016	2017 ^e	2018 ^f
경제성장률	4.9	5.0	5.2	5.3
소비자물가상승률	6.4	3.5	4.0	3.9
경상수지/GDP	-2.0	-1.8	-1.7	-1.8
재정수지/GDP	-2.5	-2.5	-2.7	-2.5

자료: IMF

□ [경제성장] 2015년 이후 경제성장률 완만한 상승세 지속 전망

- 2016년에는 경제성장률이 민간소비 회복 및 인프라 등 투자 증가에 힘입어 5.0%로 소폭 회복됨. 2017년에는 민간소비 증가와 함께 투자와 순수출 증가로 경제성장률이 5.2%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
- 2018년에도 소비 및 투자 증가, 정부지출 확대 등 내수확대로 5.3% 수준의 안정적 경제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물가] 3%대 후반의 안정적인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 2016년에는 환율 안정에 따른 수입물가 안정 및 휘발유, 육류, 설탕 등 생필품 가격인하 정책에 힘입어 중앙은행의 목표치(3.0~5.0%) 범위 내인 3.5%로 둔화됨.
- 2017년에는 국제 원자재가격 회복 등으로 수입물가가 상승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0%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8년에도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경상수지] -1%대 후반 수준의 경상수지 적자 지속 전망

- 인도네시아의 경상수지는 중산층 증가에 따른 소비재와 인프라개발을 위한 자본재의 수입확대에 따라 2012년에 적자로 전환된 후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 2017년에는 대외 차입비용 증가에 따른 소득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GDP 대비 -1.7% 수준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8년에도 비슷한 수준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 GDP 대비 -2%대의 만성적 재정수지 적자 지속

- 2017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사회적 지출과 공공사업 등 정부지출 증가로 -2.7%로 전년 대비 소폭 확대되고, 2018년에는 성장률 상승과 함께 정부의 세수 확대 노력에 따라 -2.5%로 전년 대비 소폭 축소될 전망이다.
- 공공부채 규모는 2017년 GDP 대비 28.7% 수준으로 아시아 여타 신흥개도국(평균 49.2%)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임.

II. 중남미4)

1. 지역 경제전망

<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

단위: %

구 분	2015	2016	2017 ^e	2018 ^f
경제성장률	0.1	-0.9	1.2	1.9
소비자물가상승률	5.5	5.6	4.2	3.6
경상수지/GDP	-3.4	-2.0	-2.0	-2.3
재정수지/GDP	-7.0	-6.4	-6.1	-6.2

자료: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2017.10

□ [경제성장] 점진적 경제회복세 기대되나, 대내외 불안정은 성장 제약요인으로 잠재

- 2018년 중남미 경제는 글로벌 경기 회복세,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라틴 주요국*의 경제침체 탈피 및 플러스 성장 전환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 중남미 전체 GDP의 70% 이상을 브라질(38.1%), 멕시코(20.9%), 아르헨티나(11.3%) 등 3개국 이 차지하며, 칠레(4.8%), 콜롬비아(5.6%), 베네수엘라(3.9%)가 뒤를 잇고 있음.

- 역내 경제규모 1위와 3위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각각 성장률 1.5%, 2.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칠레, 콜롬비아 등 기타 남미 주요국도 전년대비 소폭 개선된 2%대 중후반의 성장세 시현이 기대됨.
- 역내 2위의 경제대국인 멕시코는 미국의 NAFTA 재협상 및 이민장벽 건설 추진에 따른 시장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거시경제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2%대 내외의 성장률을 유지할 전망이다.
- 미국 경제와 관광산업 및 해외근로자 송금액에 대한 의존이 높은 중미(카리브해 포함)는 4~5%의 고성장을 지속하겠으며, 베네수엘라는 정치불안정, 물가폭등, 환율불안정이 지속되면서 경제위기가 고조될 전망이다.

- 대외적으로는 미국 등 선진국 통화정상화 및 보호무역 기조가 불안요소로 계속되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2018년 예정된 주요국 선거가 역내 경제안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지난 해에 이어 콜롬비아, 파라과이, 멕시코, 브라질 등 주요국 대선 및 의원 선거가 2018년에 집중되어 있어, 정치지형 변화에 따른 정치불안정과 긴장감은 경제회복 속도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음.

※ 2018년 중남미 주요 대선일정: 코스타리카(2월), 파라과이(4월), 콜롬비아(5월), 멕시코(7월), 브라질(10월), 베네수엘라(12월)

4) 남미(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콜롬비아,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우루과이, 파라과이, 가이아나, 수리남), 중미(멕시코, 과나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벨리즈), 카리브해(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 자메이카, 바하마,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세인트 키츠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32개국

□ [물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물가상승률 유지

-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을 제외한 중남미 전체 물가상승률은 3%대 중반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가격 상승, 재정적자 개선을 위한 세제강화 등 물가상승의 압박요인이 상존함.
- 경기침체로 디폴트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베네수엘라는 물가상승률이 2017년 650%에서 2018년에는 2,349%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아르헨티나는 통화당국의 물가안정화 노력으로 물가상승률이 하향안정세를 보이겠으나 여전히 17%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 지속될 전망이다.

□ [경상수지] 수출은 개선되겠으나, 경상수지 적자는 -2%대 수준 유지

- 글로벌 상품수요 증가 및 원자재가격 회복에 따라 수출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대내 경제회복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 중국의 성장둔화 및 보호무역 기조에 따른 불안정한 통상환경 등을 감안시 경상수지 적자 개선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 원자재 가격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나 호황기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미국의 무역조건 개선요구 및 이민정책 변화(해외송금 제한 등) 등은 해외근로자 송금액 의존도가 높은 멕시코 등 중미 국가의 경상수지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재정수지] 취약한 재정구조 개선을 위한 제한적 재정정책 운용

- 저유가, 공공부문 지출 증가로 대규모 재정적자가 누적되면서 주요국을 중심으로 세제개혁, 연금제도 개혁 등 재정건전화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여전히 GDP의 6%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는 지속될 전망이다.
- 대규모 재정적자를 시현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은 적자규모 축소와 정부부채* 관리를 위해 긴축재정을 지속하겠으나,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양호한 칠레, 페루 등 일부국가는 경기부양을 위해 공공지출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음.

* 정부부채/GDP('17년, %): 브라질(87.7), 아르헨티나(53.4), 멕시코(53.3), 콜롬비아(48.5)

2. 국가별 경제전망

가. 브라질

<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

	2015	2016	2017 ^e	2018 ^f
경제성장률	-3.8	-3.6	0.7	1.5
소비자물가상승률	10.7	6.3	3.6	4.0
경상수지/GDP	-3.3	-1.3	-1.4	-1.8
재정수지/GDP	-10.3	-9.0	-9.2	-9.3

단위: %

자료: IMF

□ [경제성장] 경기침체 탈피 후 완만한 성장세 지속

- 브라질 경제는 2년 간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지난해 성장률 0.7%로 플러스 전환에 성공하였으며, 저금리·저인플레이션 기조에 따른 투자활성화 및 민간 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2018년에도 1.5%의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 2016년 8월 출범한 테메르 정부는 인프라투자 민영화 촉진, 노동법 개정, FTA 확대 등 친시장 정책을 추진 중이며, 금년 대선 전망이 다소 불확실한 상황이나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신정부에서도 경제활성화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물가] 물가는 4%대 내외로 하향 안정

- 2017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농산물 풍작 등에 따른 식료품 가격 안정으로 10년만에 최저치인 3.6%를 기록하였고, 2018년에도 정부의 목표물가수준(4.5±1.5%) 이내로 전망되나, 물가연동제*에 따른 기대인플레이션 상승과 해알화 가치하락 등은 물가상승률 인상의 위험요인으로 상존함.

* 최저임금이 GDP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에 연동

- 한편, 브라질 중앙은행은 물가상승률 하향안정 등에 힘입어 내수진작 및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Selic)를 지속 하향조정 해 온 바, 2016년 12월 13.75%이었던 금리가 2017년 12월에는 7.0%까지 하락함.

□ [경상수지]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GDP 대비 -1%대 후반 전망

- 대규모 상품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기업의 과실송금, 외채원리금 상환에 따른 소득수지 및 서비스수지 적자로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 회복으로 수입수요가 증가하면서 GDP 대비 적자규모는 전년대비 소폭 증가(-1.4% → -1.8%)가 예상됨.

□ [재정적자] 연금개혁 지연 등 대규모 재정적자 개선 난망

- 3년 연속 GDP 대비 9%를 상회하는 대규모 재정적자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 회복 및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재정수입은 증가하겠으나, 의회내 의견분열로 인한 연금개혁 지연 등을 감안할 때 금년에도 전년 수준의 적자 지속이 예상됨.
- 정부는 최소 연금수령을 위한 적립기간 상향(15년→25년), 퇴직연령 65세로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연금개혁을 추진 중으로, 향후 브라질 재정적자 개선 및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멕시코

<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

단위: %

	2015	2016	2017 ^e	2018 ^f
경제성장률	2.6	2.3	2.1	1.9
소비자물가상승률	2.1	3.4	6.1	3.5
경상수지/GDP	-2.5	-2.2	-1.7	-2.0
재정수지/GDP	-4.1	-2.9	-1.4	-2.5

자료: IMF

□ [경제성장] 시장 불안정성으로 성장세 둔화 지속

- 대외무역환경 개선, 유가회복 및 지진피해* 복구·재건활동 등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은 지속되겠지만, 미국의 금리인상 및 법인세 감면 등에 따른 대 멕시코 투자 감소 우려, NAFTA 재협상, 7월 대선 등을 둘러싸고 시장불안이 확대되면서 경제성장률은 2%대 내외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 '17.9월 멕시코 남부지역에서 규모 8.1 및 7.1의 대지진이 발생하여 약 370명이 사망

- 정치·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2017년 1월 16페소를 하회하던 달러당 페소 환율은 2018년 1월 19페소 수준으로 상승함.

□ [물가] 물가상승률은 목표 범위 이내로 하락 기대

- 멕시코 중앙은행은 물가상승률 목표를 3±1%로 설정하고 있으며, 2017년을 제외하고 최근 수년간 목표범위 내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물가상승률을 관리해 왔음. 금년 물가상승률은 3%대로 예상되나, 페소화 가치하락 및 수입물가 상승은 물가상승의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지난해 환율상승, 정부의 에너지가격 인상('17.1월), 자연재해 및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물가상승률이 6.1%로 급등함. 한편, 중앙은행은 환율 및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2015년 12월 3%에서 2017년 12월 7.25%(현행)으로 인상함.

□ [경상수지] GDP 대비 -2%대 경상수지 적자 전망

- 멕시코는 최근 수년간 GDP 대비 -2% 이상의 경상수지 적자를 지속해 왔음. 2017년에는 수출 증가에 힘입어 경상수지 적자가 -1.7%로 다소 완화되었으나, 2018년에는 상품수지 적자가 확대되면서 전년대비 적자비중이 증가할 전망이다.
- 다만, FDI 유입이 지속되고 있고, 월평균 수입액의 4개월을 상회하는 외환보유액('17년 약 1,715억 달러)을 통해 경상수지 적자는 관리가능 수준으로 평가됨.

□ [재정수지] 금년 대선으로 정부지출 증가 예상

- 저유가 상황에서 정부의 세제개혁('13년)을 통한 비석유 부문 세수 증대 등으로 재정적자가 개선되는 추세이나, 2018년은 대선 전후 정부의 지출 확대로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전년(-1.4%)대비 -2%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다. 아르헨티나

<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

단위: %

	2015	2016	2017 ^e	2018 ^f
경제성장률	2.6	-2.2	2.5	2.5
소비자물가상승률	26.5	41.4	22.3	16.7
경상수지/GDP	-2.7	-2.7	-3.6	-3.7
재정수지/GDP	-5.9	-5.8	-6.6	-5.6

자료: IMF. 단, 2015 및 2016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EIU자료 인용

□ [경제성장] 민간부문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가도 기대

- 극심한 침체를 겪은 아르헨티나 경제는 2017년부터 주요 교역국인 브라질의 경제침체 해소와 공공지출, 민간소비 및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바, 전년에 이어 2018년에도 2~3%의 성장률 달성이 기대됨.
- 2015년 12월 출범한 마크리 정부는 수출세 폐지, 외환통제 철폐 등 친시장 개방 정책으로 대외신인도 제고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브라질 경제의 향방 등 불확실한 대외여건은 성장의 잠재적 한계요소로 분석됨.

□ [물가]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되나, 상승률은 둔화세

- 2016년 40%에 육박하던 물가상승률은 점진적으로 완화되어 2018년에는 17%대 내외로 축소가 예상되나, 여전히 두 자릿수의 높은 수준은 지속될 전망이다.
-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위해 목표물가('18년 15%, '19년 10%)를 설정하고 시중 통화흐름을 위한 고금리 정책을 견지하고 있음.

□ [경상수지] GDP 대비 -3%대 후반의 적자 예상

- 수입규제 완화와 관세 인하로 수입이 확대되고 외채 이자 상환이 증가하면서 2017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3%대 중반으로 확대되었으며, 2018년에도 전년과 유사 또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정부의 친시장 경제정책에 따른 투자자 신뢰회복, FDI 유입 증가 등은 외환보유액 확대를 통해 대외지급능력 개선과 외채상환부담 완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 [재정수지] 점진적인 재정적자 규모 축소 기대

- 정부의 세수증대, 긴축재정, 보조금 지급축소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전 정권시절 포퓰리즘의 여파로 대규모 재정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2017년 12월 연금개혁안이 의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향후 정부는 재정적자 개선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 정부는 그동안 연금·세제·노동의 '3대 개혁'을 주요 과제로 추진해 왔으며, 특히, 연금개혁은 지급액의 물가상승률 연동, 수령시기 연장 등을 통한 연금 지급액 감소로 재정지출 부담을 상당부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됨.

III. 중동·아프리카

1-1. 지역 경제전망 : 중동·북아프리카(MENA)⁵⁾

<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

단위 : %

구분	2015	2016	2017 ^e	2018 ^f
경제성장률	2.6	5.1	2.2	3.2
소비자물가상승률	6.0	6.0	8.4	7.1
경상수지/GDP	-4.0	-4.4	-1.7	-1.3
재정수지/GDP	-9.1	-10.0	-5.7	-4.5

자료: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2017.10.

□ [경제성장] 국제유가 회복으로 3%대 경제성장이 전망되나 역내 불확실성 상존

- 산유국 감산 합의('16.11월) 및 연장으로 국제유가가 점차 상승함에 따라 동 지역의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산유국들의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며 경제성장률은 2017년 2.2%에서 2018년 3.2%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시리아·예멘 내전을 둘러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의 갈등, 미국 정부의 이란 핵협상 파기 위협 등으로 인한 역내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음.

□ [물가]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긴축 통화정책 등으로 다소 하락할 전망

- 보조금 폐지·삭감과 통화가치 하락 등의 여파로 2017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8.4%로 전년(6.0%)대비 대폭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2018년에는 식량 수입가격 안정, 긴축 통화정책 운용 등에 따라 7.1%로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다만, GCC(걸프협력위원회) 6개국은 부가가치세 도입('18.1월)과 보조금 추가 삭감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2017년 0.8%에서 2018년 4.2%로 대폭 상승할 전망이다.

□ [경상수지] 산유국들의 석유수출액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 개선 전망

- 저유가 추세 지속으로 인한 산유국들의 석유수출액 감소로 상품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2015년 -4.0%, 2016년 -4.4%로 악화되었으나, 감산 합의에 따른 국제유가 회복에 힘입어 동 비중은 2017년 -1.7%로 개선된 데 이어 2018년에도 -1.3%로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 [재정수지] 국영 석유기업들의 수익 개선으로 재정수지 적자 개선 전망

- 산유국 감산 합의로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요 산유국들의 재정수지 적자가 개선됨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017년 -5.7%로 전년 (-10.0%) 대비 개선된 것으로 추정되며, 감산 합의 연장으로 2018년에는 -4.5%로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5) Middle East and Northern Africa: 중동(바레인, 이란, 이라크,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UAE, 예멘) 및 북아프리카의 아랍어 사용 국가들(알제리, 리비아, 지부티, 이집트, 모리타니, 모로코, 수단, 튀니지)을 지칭

1-2. 지역 경제전망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SA)⁶⁾

<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e	2018 ^f
경제성장률	3.4	1.4	2.6	3.4
소비자물가상승률	7.0	11.3	11.0	9.5
경상수지/GDP	-6.1	-4.2	-3.4	-3.6
재정수지/GDP	-4.4	-4.7	-4.7	-4.3

자료: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2017.10.

□ [경제성장] 전 세계적인 경기 회복세에 따라 2018년 3%대 성장 전망

- 2017년 경제성장률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나이지리아의 경제성장, 동부 및 남부의 가뭄 문제 완화 등으로 인해 전년(1.4%) 대비 상승한 2.6%로 추정됨.
- 2018년에는 전 세계적인 경기 회복세 등 외부요건의 개선에 힘입어 3%대 중반의 성장이 전망됨.
 - 상대적인 고성장이 기대되는 국가들의 경우 주로 공공지출에 기반한 성장으로 분석되며, 공공지출 증가로 인한 외채규모 증가의 부담을 안고 있음.

□ [물가] 소비자물가는 긴축 통화정책과 환율 안정으로 2018년 9%대로 하락 전망

- 유가하락으로 인한 주요 에너지자원 수출국들의 통화 가치 폭락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으로 2016년 11.3%에 달했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7년에도 동부 지역의 가뭄으로 인한 작황 부진에 따른 식량 가격 상승으로 11.0%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8년에는 주요국들의 긴축적 통화정책 운용과 환율 안정 등에 따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9%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경상수지] 원유생산량 증대와 유가상승으로 경상적자 규모 안정 전망

- 앙골라와 나이지리아의 원유생산량 증대 및 유가상승에 따른 수출액 증가, 소비 위축,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완공 등에 따른 각국의 상품수입 감소로 인해 2017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전년(-4.2%) 대비 개선된 -3.4%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8년에도 -3.6%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 [재정수지] 산유국 재정수입 증가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는 다소 개선 전망

- 산유국 감산 합의 연장으로 인한 유가상승 추세에 따른 역내 주요 산유국들의 재정수지 개선, 재정건전화 노력 지속 등으로 2018년의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4.3%로 전년(-4.7%) 대비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6) Sub-Saharan Africa: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로 북아프리카 국가(알제리, 리비아, 지부티, 이집트, 모리타니, 모로코, 수단, 튀니지) 제외

2. 국가별 경제전망

가. 사우디아라비아

<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

	2015	2016	2017 ^e	2018 ^f
경제성장률	4.1	1.7	0.1	1.1
소비자물가상승률	2.2	3.5	-0.2	5.0
경상수지/GDP	-8.7	-4.3	0.6	0.4
재정수지/GDP	-15.8	-17.2	-8.6	-7.2

단위: %

자료: IMF

□ [경제성장] 감산 연장에 따른 유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전망

- 2016년 말 산유국 감산 합의로 국제유가가 상승하였으나, 재정적자 개선을 위한 정부지출 축소로 투자 및 소비가 위축되어 2017년 경제성장률은 0%대로 둔화된 것으로 추정됨.
- 산유국들이 2017년 11월 감산 재연장에 합의하였음에도 미국 셰일오일 기업들의 생산량 등의 변수가 존재하여, 사우디아라비아 경제는 2018년에도 1%대 초반의 저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물가] 보조금 개혁, 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도입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 전망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7년에는 주로 식료품 등 비(非)에너지 부문의 가격 하락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나, 2018년에는 연료·전력 보조금 삭감, 2017년 하반기에 도입된 개별소비세의 물가상승 효과 발현 및 부가가치세 도입에 따른 체감물가 상승 등의 여파로 인해 5%대로 급등할 전망이다.

□ [경상수지] 유가상승에 따른 원유수출액 증대로 경상수지 흑자 유지 전망

- 저유가 추세로 원유수출액이 급감하며 2015~16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경상수지는 2017년에는 유가상승으로 상품수지 흑자가 증가하여 GDP 대비 0.6%의 흑자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됨. 다만, 2018년에는 상품수입 증가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 감소로 동 비중이 0.4% 내외로 축소될 전망이다.

□ [재정수지] 국채 발행 증가, 대규모 인프라 개발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 지속 전망

- 저유가 여파로 2014년부터 적자를 지속 중인 재정수지는 감산에 따른 유가상승으로 2017년에는 GDP 대비 비중이 -8%대 후반으로 전년(-17.2%) 대비 대폭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 2018년에는 부가가치세 도입 등 세수 증대 노력이 계속되어 동 비중이 -7%대 초반으로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채 발행 증가와 대규모 인프라 개발 등으로 인해 재정적자는 계속될 전망이다.

나. 이 란

<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

단위: %

	2015	2016	2017 ^e	2018 ^f
경제성장률	-1.6	12.5	3.5	3.8
소비자물가상승률	11.9	9.0	10.5	10.1
경상수지/GDP	2.4	4.1	5.1	5.9
재정수지/GDP	-1.8	-2.3	-2.2	-2.2

자료: IMF

□ [경제성장] 유가상승과 원유수출 증가로 3%대 성장이 전망되나 변수 존재

- 산유국 감산 합의 연장에 따른 유가상승, 원유수출량 증가세 지속 등에 힘입어 이란 경제는 2017년(3.5%)에 이어 2018년에도 3%대 후반의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역내 숙적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정치적 갈등 고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 파기 위협, 개혁파 로하니 대통령과 보수파 세력 간의 대립 등이 이란 경제성장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 이러한 변수들로 인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도 경제제재 해제 당시의 기대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 [물가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10%대 인플레이션 유지 전망

- 리얄화의 달러 대비 환율*이 상승세를 지속하여 수입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2017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9.0%) 대비 상승한 10.5%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8년에도 고환율의 영향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중앙은행의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10%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말 32,376 → 2017년 말 36,074

□ [경상수지] 국제유가 상승세로 상품수지 흑자가 증가하며 경상수지 흑자 전망

-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 수입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산유국 감산 합의 연장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세로 상품수지 흑자 증가가 예상되는 등의 긍정적 전망에 힘입어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은 2017년(5.1%)에 이어 2018년에도 5%대 후반의 흑자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재정수지] 재정수지는 적자를 지속할 전망이나 현 수준 유지

-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자본지출 증가 등으로 인해 재정수지는 적자를 지속할 전망이나, 판매세율 상향 조정 등 조세수입 증대 노력의 병행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 -2%대 초반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됨.

다. 아랍에미리트(UAE)

<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

단위: %

	2015	2016	2017 ^e	2018 ^f
경제성장률	3.8	3.0	1.3	3.4
소비자물가상승률	4.1	1.8	2.1	2.9
경상수지/GDP	4.7	2.4	2.1	2.1
재정수지/GDP	-3.4	-4.1	-3.7	-2.2

자료: IMF

□ [경제성장] 국제유가 회복 및 비석유부문 투자 확대로 경기 회복 전망

- 2017년에는 OPEC 원유 감산 합의 연장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1.3%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2018년에는 국제유가 회복 및 두바이 EXPO 2020 관련 각종 인프라 확충 노력으로 프로젝트 시장이 회복되면서 경제성장률은 3.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물가] 공공요금 인상, 부가가치세 도입 등으로 물가 상승 전망

- 2015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두바이를 중심으로 부동산 임대료 상승 및 전력 보조금 축소 등의 여파에 따라 4.1%를 기록하였으나, 2016년에는 부동산 경기 진정에 따른 임대료 상승세 완화로 1.8%를 기록하였음.
-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재정적자 폭을 상쇄하기 위한 공공요금 추가 인상 및 부가가치세 도입 등에 따라 2018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9%를 기록할 전망이다.

□ [경상수지] OPEC 원유 감산 합의 연장 등으로 경상수지는 전년도와 비슷

- OPEC 원유 감산 합의 연장에 따른 석유수출액 감소, 경제성장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해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2017년 2.1%로 낮아졌으며, 2018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 부가가치세 도입 등 재정수입 확보 노력으로 재정수지 적자 축소 전망

- 국제유가 하락세의 와중에도 복지 강화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지출 증가 지속으로 재정수지는 2015년 적자 전환하였으며, 2017년에도 GDP 대비 -3.7%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다만, 국제유가 상승과 부가세 도입 등 재정수입 확보 노력에 힘입어 2018년에는 -2.2%로 개선될 전망이다.

라. 이집트

<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

단위 : %

	2015	2016	2017 ^e	2018 ^f
경제성장률	4.4	4.3	4.1	4.5
소비자물가상승률	11.0	10.2	23.5	21.3
경상수지/GDP	-3.6	-6.0	-5.9	-3.8
재정수지/GDP	-11.4	-10.9	-9.5	-7.3

자료: IMF

□ [경제성장] 엘시시 정부의 안정적 집권에 따른 경제회복 추세 지속

- 이집트는 2011년 반정부 시위 및 무바라크 대통령 퇴진, 2013년 쿠데타 등 일련의 정치적 사건에 따른 관광수입 급감, 투자 위축 등으로 인해 2010년 5.1%를 기록하던 경제성장률이 2011~14년 2% 안팎으로 크게 하락하였음.
- 그러나 2014년 엘시시 대통령 당선으로 정치불안이 완화되었으며,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증가 등에 힘입어 2015~17년 경제성장률은 4%대로 회복되었음.
- 2018년에는 이집트파운드화 평가 절하에 따른 수출경쟁력 상승 및 新행정수도 건설 등 인프라 투자에 힘입어 4%대 중반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할 전망이다.

□ [물가] 변동환율제 도입 및 보조금 축소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 지속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이집트파운드화 평가 절하에 따른 수입비용 증가 및 연료보조금 축소의 영향으로 2016년 10.2%에서 2017년 23.5%까지 상승하였으며, 2018년에도 변동환율제 도입에 따른 환율 상승 지속, 부가가치세 도입 및 보조금 축소로 21.3%의 높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 [경상수지] 만성적 경상수지 적자는 다소나마 개선 전망

-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자본재 수요와 인구 증가에 따른 수입액 증가로 경상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음. GCC 국가 등의 무상원조가 차관 형태로 전환됨에 따른 경상이전수지 악화가 겹쳐 2016년 및 2017년 GDP 대비 경상수지는 -6.0%, -5.9%를 기록하였음.
- 2018년 GDP 대비 경상수지는 이집트파운드화 평가절하에 따른 수출경쟁력 상승효과 등으로 전년(-5.9%) 대비 다소 개선된 -3.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 보조금 개혁 등 재정건전화 정책으로 재정적자 감소세

- 정부 예산의 약 1/4을 차지하는 에너지 보조금 등으로 인해 GDP 대비 재정수지는 2016년 -10.9%, 2017년 -9.5%로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2018년에는 보조금 개혁 및 부가가치세 도입 등 재정건전화 정책으로 -7.3%까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IV. 동유럽7·CIS8)

1. 지역 경제전망

<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

단위: %

지역	구분	2015	2016	2017 ^e	2018 ^f
동유럽	경제성장률	4.7	3.1	4.5	3.5
	소비자물가상승률	3.2	3.3	6.0	5.7
	경상수지/GDP	-2.0	-1.8	-2.4	-2.5
	재정수지/GDP	-1.8	-2.1	-2.8	-2.6
CIS	경제성장률	-2.2	0.4	2.1	2.1
	소비자물가상승률	15.5	8.3	5.8	5.2
	경상수지/GDP	2.8	0.0	0.9	1.3
	재정수지/GDP	-2.4	-3.6	-2.9	-2.0

자료: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2017.10.

□ **[경제성장] 동유럽은 실업률 하락에 따른 소비활성화로 3.5%의 양호한 성장세 지속, CIS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2.1%의 플러스성장률 전망**

- 동유럽 지역은 실질임금 상승과 실업률 하락에 따른 소비 활성화와 경기 부양 정책 등에 힘입어 3.5% 수준의 양호한 성장률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CIS 지역은 국제유가 안정으로 에너지 수출국을 위주로 경제가 성장하여 2015년 마이너스 성장 및 2016년의 경기하락에서 반등하여 2017년 2.1%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18년에도 비슷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산유국은 국제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주요한 경제성장 요인이며, 비산유국인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등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으로부터의 해외근로자 송금증가가 주요 경제성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물가] 동유럽은 국제유가와 상품가격 회복으로 5.7%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CIS는 환율 안정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 하락 추세**

- 2017년 동유럽 지역의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0%로 터키(10.9%)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가 2% 내외의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였음. 2018년에도 국제유가와 상품가격 회복으로 인해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CIS 지역은 2015~2016년 저유가로 주요국 통화 환율이 크게 상승하여 수입물가가 상승하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15년 15.5%, 2016년 8.3%로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유가안정에 따른 환율안정으로 2017년 5.8%로 하락하였으며, 2018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어 5.2%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7) IMF의 Emerging and Developing Europe(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코소보,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폴란드, 루마니아, 세르비아, 터키 등 12개국) 기준

8) 러시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조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몰도바,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등 12개국

- CIS 지역은 2015년, 2016년의 저유가로 루블화(러시아), 탱게화(카자흐스탄) 등 주요국 통화의 미달러 대비 환율이 크게 상승하여 수입물가가 상승하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국제유가 안정으로 환율이 안정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하락하고 있음.

□ [경상수지] 동유럽은 경상수지 적자비중 소폭 확대, CIS 경상수지 흑자 확대 전망

- 2017년 동유럽 지역의 GDP 대비 경상수지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수입비용 증가로 -2.4%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에도 비슷한 수준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 2018년에는 헝가리(4.2%), 크로아티아(2.9%), 불가리아(1.9%)에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터키는 -4.6%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 CIS 국가들은 2017년 GDP 대비 경상수지가 0.9%로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에너지 수출소득 증가에 따라 2018년에는 1.3%로 흑자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2018년에는 주로 에너지 수출국들인 러시아(3.2%), 아제르바이잔(2.5%), 우즈베키스탄(0.9%) 등에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재정수지] 동유럽, CIS 재정수지 적자비중 감소 전망

- 동유럽 지역의 2017년 GDP 대비 재정수지는 -2.8%로 전년(-2.1%) 대비 적자 비중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2018년에는 -2.6%로 적자비중이 소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동유럽 지역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0.1%)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CIS 지역은 에너지수출 증가에 따른 세입증가로 2016년의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3.6%에서 2017년에는 -2.9%로 적자비중이 하락하였으며, 2018년에는 유가 상승에 따라 적자비중이 -2.0%로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2018년에는 아제르바이잔(0.7%), 우즈베키스탄(1.0%)을 제외한 국가들에서 재정적자가 지속되며, 비에너지 수출국인 벨라루스(-3.8%), 키르기즈(-2.4%), 타지키스탄(-5.4%) 등에서는 GDP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 국가별 경제전망

가. 터 키

단위 : %

	2015	2016	2017 ^e	2018 ^f
경제성장률	6.1	3.2	5.1	3.5
소비자물가상승률	7.7	7.8	10.9	9.3
경상수지/GDP	-3.7	-3.8	-4.6	-4.6
재정수지/GDP	-1.3	-2.3	-3.2	-2.4

자료: IMF

□ [경제성장] 관광산업 회복,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터키 경제 회복

- 2017년 5월 러시아의 대 터키 경제제재 조치 해제로 러시아 관광객 유입이 재개되면서 관광산업이 빠르게 회복된 결과 2017년 경제성장률은 5.1%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8년에는 경제성장세가 완화되어 3.5%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 2017년 4월 대통령중심제 개헌안이 국민투표로 가결(찬성 51.4%)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은 완화되었으나, 부정선거 의혹으로 인한 반정부 시위 발생, 국가 비상사태 총 6차 연장 등 불안요소도 상존해 있음.

□ [물가] 리라화 약세,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9%대의 높은 수준 유지

- 2017년 달러 대비 리라화 가치 하락, 국제유가 상승으로 2017년 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3.1%p 상승한 10.9%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8년에도 전기요금(가정용 8.8%, 산업용 8% 인상), 도로통행료(10%~25% 인상), 자동차 구입세(1,300cc 미만 차량 15% 인상, 300cc 초과 차량 25% 인상)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물가상승률은 9.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경상수지]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경상수지 적자 전망

- 2017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전년('16년)에 비해 0.8%p 상승한 -4.6% 수준으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고, 2018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 보조금 폐지 등 긴축정책 노력으로 재정수지 적자 규모 축소 전망

- 2017년 GDP 대비 재정수지는 군부 쿠데타 시도 이후 투자심리 악화, 관광산업 위축 등의 영향으로 -3.2%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나, 2018년에는 각종 보조금 폐지 등 긴축정책에 힘입어 -2.4%로 감소될 전망이다.

나. 러시아

<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

단위 : %

	2015	2016	2017 ^e	2018 ^f
경제성장률	-2.8	-0.2	1.7	1.7
소비자물가상승률	15.5	7.0	4.2	3.9
경상수지/GDP	5.0	2.0	2.8	3.2
재정수지/GDP	-3.4	-3.7	-2.1	-1.5

자료: IMF

□ [경제성장] 국제유가 상승세에 따라 플러스 경제성장을 유지

- 2017년 러시아 경제는 국제유가 안정에 따라 2015~2016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1.7%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였으며,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되어 2018년에도 1.7%의 성장이 기대됨.
- 2017년 2/4분기부터 산업생산증가율, 고정자본투자율, 소매거래량 등이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물가] 소비자물가상승률 지속 하락 추세

- 2015년 미달러 대비 루블화 환율이 29.5% 상승함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5.5%까지 상승하였으며, 2016년 1월 루블화가 최고치(82.5루블/달러)를 기록한 이후 환율이 하락함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도 하락 추세임.
- 국제유가 상승세에 따른 루블화 안정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7년 4.2%로 전년('16년 7.0%)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2018년에도 3.9%로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경상수지] 에너지 수출소득 증가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

- 2017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수출소득 증가로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이 2016년의 2.0%에서 2.8%로 상승하였으며, 유가상승 기대에 따라 2018년에도 3.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8년에는 수출이 5.8% 증가하고, 수입이 4.5% 증가하여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늘어난 2017년에 비해 경상수지 흑자비중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 재정수지 적자 개선

- 2017년 국제유가 안정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가 2016년의 -3.7%에서 -2.1%로 소폭 하락되었으며, 2018년에는 -1.5%로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2018년의 국제유가 상승세에 따라 재정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부지출이 증가하여 GDP 대비 -1.5%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다. 우즈베키스탄

<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

	2015	2016	2017 ^e	2018 ^f
경제성장률	8.0	7.8	6.0	6.0
소비자물가상승률	8.5	8.0	13.0	12.7
경상수지/GDP	0.7	0.7	0.9	0.3
재정수지/GDP	0.8	0.4	0.6	1.0

자료: IMF

□ [경제성장] 원자재 가격 안정과 러시아의 경제상황 개선으로 성장지속

- 2017년 국제에너지 가격의 안정과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 카자흐스탄의 경제 지표 개선으로 우즈베키스탄은 6.0%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어 2018년에도 6.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 중앙아시아 가스관(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중국)을 통한 중국으로의 안정적인 가스 수출, 해외노동자 송금 증대 등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음.

□ [물가] 이중환율 폐지로 인한 환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물가 상승 추세

- 2017년 정부의 환율단일화와 변동환율제 도입으로 인한 환율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3.0%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어 12.7%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7년 9월 5일 정부는 환율제도를 단일화하고, 공식환율을 시장환율 수준(4,210숨/달러 → 8,100숨/달러)으로 인상하였으며, 이는 수입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물가상승률에 크게 영향을 주었음.

□ [경상수지] 국제에너지 가격 안정과 주변국 경제상황 개선으로 흑자 기록

-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 해외근로자 송금액 증가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는 2016년의 0.7%에서 2017년 0.9%로 상승하였으며, 2018년에는 0.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8년에는 민간소비 증가로 인해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2017년에 비해 경상수지 흑자 비중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 국제에너지 가격 안정으로 재정수지 흑자 비중 증가

- 국제에너지 가격안정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는 2017년 0.6%로 흑자비중이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는 1.0%로 흑자비중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2014~2016년의 국제에너지 가격의 하락과 정부의 인프라 및 연금지출 증가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비중이 줄어들었으며, 2017년 3월 이후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다시 재정흑자 규모가 늘어나고 있음.